

## 구문론과 의미론에 근거한 성경 번역을 위한 제안

김창대\*

### 1.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성경 신학에서 텍스트 언어학은 성경 해석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텍스트 언어학은 단순히 해석 방법뿐만 아니라 번역에서도 크게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영어번역에서는 텍스트 언어학 방법론을 사용하여 올바른 번역을 제안하는 많은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다.<sup>1)</sup> 이런 점에서 성경 번역도 텍스트 언어학 방법론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 언어학에 의하면, 텍스트(text)는 의사소통 행위로서 문법적 요소들의 결속과 의미의 일관성을 통해 저자의 의도가 전달되는 장으로 정의된다.<sup>2)</sup> 즉 구문론의 결속성(syntactical cohesion)과 의미의 일관성(semantic coherence)이 결합된 화용론(저자의 의도)이 톱니바퀴처럼 작동하여 저자의 의도가 소통되는 곳이 텍스트라는 설명이다.<sup>3)</sup> 이런 점에서 텍스트는 저자가 구문론적 특성과 함께 의미의 주제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다.<sup>4)</sup>

\*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안양대학교 구약학 교수. [kimcd36@hotmail.com](mailto:kimcd36@hotmail.com).

1) 한 예로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김영신, “영한번역에서 결속장치(Cohesive Ties) 전환연구 -접속사(Conjunction)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7 (2009), 99-115.

2) 텍스트 언어학의 입문서로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R. de Beaugrande and W. Dressler,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New York: Longman, 1980).

3) 김창대, “구약해석 방법론: 텍스트 언어학”, 『신학지평』 20 (2007), 165.

4) P. Cotterell, “Semantic, Interpretation, and Theology”, W. A. VanGemeren, ed., *A Guide to Old*

이런 텍스트의 정의를 성경 번역에 대입시키면, 올바른 성경 번역을 위해 번역자는 성경 저자가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구문론적 규칙들과 문장 단위를 넘은 일관된 의미들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별히 본문의 문장과 문장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통일된 네트워크를 이루기 때문에, 번역자는 글 전체를 조망하면서 문장 안에 구문론적 규칙과 의미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성경 번역에서 번역자가 중요시할 사항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가장 시급한 점은 문장과 문장들 사이에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는 번역이라고 생각된다. 보통 번역된 문장들은 각각 매우 훌륭하지만 그 문장이 다음의 문장과 의미 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미론적 문제뿐만 아니라 구문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는 차세대 성경 번역을 위해 『개역개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구문론과 의미론에 근거해서 올바른 성경 번역을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2. 구문론적 결속성

구약 성경 번역에서 문장 안에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의미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구문론적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필수적이다.<sup>5)</sup> 이를 위해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올바른 번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 2.1. 접속사 키(כִּי)

접속사 “키”(כִּי)는 히브리어 구문론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시간, 원인, 이유(~하다니), 조건, 양보(~할지라도), 비교(~처럼)의 부사절을 이끄

---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9), 141. 비슷하게 보그랑데(R. de Beaugrande)도 사람들이 형식(문법적 형태)과 의미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조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본문 자체를 구성하는 의사소통 행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R. de Beaugrande, “Text Linguistics in Discourse Studies”,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ume 1: Disciplines of Discourse* (Orlando, FL: Academic, 1985), 61.

5) 이처럼 의미의 흐름에 기여하는 문법을 “기능적 문법”(functional grammar)이라고 부른다. R. Buth, “Functional Grammar, Hebrew and Aramaic: An Integrated Textlinguistic Approach to Syntax”, W. R. Bodine, ed., *Discourse Analysis of Biblical Literature: What It Is and What It Offers* (Atlanta, Ga: Scholars, 1995), 78.

는 접속사로 사용된다. 하지만 종종 성경에서 이 접속사가 목적(결과)의 의미로 사용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신 19:8-9)

8 וְאִם-יִרְחִיב יְהוָה אֱלֹהֶיךָ אֶת-גְּבוּלְךָ כַּאֲשֶׁר נִשְׁבַּע לְאַבְתָּיִךְ וְנָתַן לְךָ  
 אֶת-כָּל-הָאָרֶץ אֲשֶׁר דִּבֶּר לְתֵת לְאַבְתָּיִךְ:  
 9 כִּי-תִשְׁמַר אֶת-כָּל-הַמִּצְוֹת הַזֹּאת לַעֲשׂוֹתָ אֲשֶׁר אָנֹכִי מְצַוֶּה הַיּוֹם לְאַהֲבָה  
 אֶת-יְהוָה אֱלֹהֶיךָ וּלְלַקֵּת בְּדַרְכָּיו כָּל-הַיָּמִים וְיִסַּפֵּת לְךָ עוֹד שְׁלֹשׁ עָרִים  
 עַל הַשְּׁלֹשׁ הָאֵלֶּה:

『개역개정』

(신 19: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신 19:9)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신명기 19:8-9에서 『개역개정』의 번역은 약간 아쉽다. 이 번역은 9절을 여는 접속사 “키”(כִּי)를 “~할 때”라는 시간의 접속사로 번역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길로 행할 때 3개의 도피성을 세우는 말씀으로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유도한다.<sup>6)</sup>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기에, 이렇게 번역하면 도피성을 세운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 된다.

한편 NIV는 접속사 “키”를 “~ 때문에”라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이해한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을 행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 3개의 도피성을 세우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했기 때문은 아니다(신 7:1).

필자의 견해로 신명기의 신학과 의미적 통일성을 고려할 때, 19:9를 시작하는 접속사 “키”는 목적(결과)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sup>7)</sup> 이

6) 한편 티가이(J. H. Tigay)는 19:9의 접속사 “키”를 조건으로 번역한다. J. H. Tigay, *Deuteronomy*,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181.

7) R. J. Williams, *Williams' Hebrew Syntax*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7), 187; B.

렇게 되면 3개의 도피성을 세우기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19:8-9는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의 경계를 넓혀 너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말씀하신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준다면 — 그 목적은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가기 위함이다 — 그때 너는 기존의 이 세 성읍 위에 또 다른 세 성읍을 더하라

## 2.2. 접속사 바브(ו)

접속사 “바브”(ו)는 성경에서 저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sup>8)</sup> 구체적으로 접속사 ‘바브’는 등위접속사 바브와 바브계속법의 바브 용법으로 나뉜다. 등위접속사 바브는 (1) 순접 바브(conjunctive ו, ‘그리고’, ‘그래서’로 해석. 목적을 나타낼 수 있음), (2) 역접 바브(disjunctive ו, ‘그러나’와 같이 대조상황을 나타내지만 동시상황, 비교상황, 원인, 새로운 화제 등을 표시할 수 있음), 그리고 (3) 설명적 바브(epexegetical ו, ‘즉’으로 해석됨)라는 3가지 용법으로 분류된다.<sup>9)</sup>

바브계속법의 바브도 앞의 상황과 관련해서 (1) 시간적 순서, (2) 논리적 결과, (3) 부연설명(동시상황, 이전상황, 원인, 구체적인 예 등)을 보여주는 3가지 용법으로 세분화된다.<sup>10)</sup> 여기서 문제는 바브계속법의 바브가 부연 설명의 용법을 할 때다. 특별히 부연설명으로 바브계속법 바브와 연결된 미완료형은 앞의 상황에 대해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한글 성경이 이를 종종 놓치는 실수를 범한다. 예를 들어 보자.

(왕하 6:33)

עֲדָנוּ מְדַבֵּר עִמָּם וְהִנֵּה הַמֶּלֶךְ יֹרֵד אֵלָיו 33a  
וַיֹּאמֶר הִנֵּה-זֹאת הָרֶעָה מֵאֵת יְהוָה מֵה-אוֹחִיל לִיהוָה עֹד: 33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0), 639. 이 책들에서는 결과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목적에 더 가깝다.

8) 접속사 바브의 기능과 관련된 번역 제안과 관련해서 다음의 좋은 글을 참조하라. 한동구, “쉬운 일상적 언어로의 성경 번역을 위한 제안-바브(ו) 접속사의 기능-”, 「성경원문연구」 제31호 <별책> (2012), 143-152.

9)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650-654.

10) *Ibid.*, 496-563.

## 『개역개정』

(왕하 6:33상반)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하 6:33하반)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구절에서 『개역개정』은 6:33하반을 시작하는 “봐요메르”(봐브계속법의 봐브+미완료)의 기능을 번역하지 않았다. 이 구절에서 봐브계속법의 봐브는 왕이 보낸 사자가 엘리사에게 온 상황(6:33상반) 이전의 상황을 소개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사자가 엘리사에게 온 이유가 그 전에 재앙이 심하다고 느낀 왕이 여호와를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하고 사자를 엘리사에게 보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과거 상황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sup>11)</sup> 따라서 열왕기하 6:33하반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이전에 왕이 말하기를 보라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왜 여호와를 계속 기다려야 하는가 라고 말했다.” 앞의 상황과 관련해서 과거 상황을 나타내는 봐브계속법의 봐브 용법은 에스겔 10장에서도 발견된다(겔 10:4; 참조, 겔 9:3).

## 2.3. 명사의 부사적 용법

히브리어에서 명사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연계형과 연결된 절대형), 보격, 동격, 호격 외에도 부사로 사용될 수 있다.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될 때, 명사는 단독으로 (1) 장소(“~에서”, “~로부터”, “~를 향해” 등), (2) 시간, (3) 방법(수단, “~를 가지고”로 해석됨), (4) 목적(결과), (5) 특정화(“~의 경우”로 해석됨. 종종 את를 동반함)의 의미를 나타낸다.<sup>12)</sup> 그런데 『개역개정』의 번역을 보면, 목적(결과)의 기능을 하는 명사의 부사적 용법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연계형에 걸리는 절대형도 마찬가지다. 절대형도 앞의 연계형에 대해 목적(결과)을 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3)</sup> 이에 대한 예를 살펴보자.

(잠 1:3)

לְקַחַת מוֹסֵר הַשִּׁפְלִי צָדֵק וּמִשְׁפָּט וּמִיִּשְׁרָיִם: 3

11) P. R. House, *1, 2 Kings*, NAC 8 (Nashville, Tenn.: Broadman & Holman, 2003), 279.

12) R. J. Williams, *Williams' Hebrew Syntax*, 19-22.

13) *Ibid.*, 16.

## 『개역개정』

(잠 1:3)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 구절에서 『개역개정』은 “지혜롭게”에 해당하는 부정사 절대형 “하스켈”(לְחָכְמָה)을 뒤에 나오는 “공의”(צְדָקָה), “정의”(מִשְׁפָּט), 그리고 “정직”(מִשְׁתָּדָר)이라는 명사들과 동격을 이루는 말로 번역했다.<sup>14)</sup> 하지만 통찰(또는 신중함)을 의미하는 “하스켈”은 앞의 “무사르”(훈계)라는 연계형에 연결된 절대형으로서, 훈계의 목적을 뜻한다. 이런 맥락에서 잠언은 훈계를 받을 때 신중해진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잠 15:5; 19:25). 그리고 뒤에 나오는 “체테크”, “미쉬파트”, 그리고 “메샤림”은 “무사르”와 연결된 절대형이라기보다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어 또 다른 목적(결과)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번역을 제안할 수 있다.<sup>15)</sup>

훈계를 받아 통찰을 갖게 하여 의와 공의와 정직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3. 의미의 일관성

의미의 일관성이란 단어의 의미로부터 시작해서 문장의 의미가 글 전체의 의미와 일관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일된 네트워크를 이룬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문의 저자는 이런 의미의 일관성을 통해 횡설수설하지 않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설득한다. 이는 성경 저자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성경 번역자가 성경을 관통하는 의미의 일관성을 살리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단어의 번역이다. 『개역개정』은 구약에서 대표적인 단어인 “체다카”(חֲדָקָה) 또는 “체테크”(צְדָקָה)를 “공의”로, “미쉬파트”(מִשְׁפָּט)는 “정의”로 대부분 번역하였다. 하지만 구약 전체의 문맥을 고려할 때, “체다카”와 그와 같은 어근의 동사 “차다크”는 관계적 언어로서 타인, 모든 피조물, 그리고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

14) 이런 이해는 폭스(M. V. Fox)도 마찬가지다. M. V. Fox, *Proverbs 1-9*, AYB 18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0), 60.

15) 김창대, “잠언의 윤리적 토대로서 신중함에 관한 연구”, 『神學研究』 69 (2016), 46.

다(창 15:6).<sup>16)</sup> 단순히 사회적으로 공의를 실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모습을 유지하는 모습을 지칭한다는 뜻이다(사 45:25).

더욱이 “체다카”(또는 “체테크”)는 “미쉬파트”의 상위개념으로서 “미쉬파트”를 통해 공의가 실현될 때 나타나는 상태에 그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신명기 16:18에서 『개역개정』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고 번역한 부분에서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text{קְדָשׁוֹתַי}$ 로서 “의를 위한 공의”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미쉬파트”의 궁극적인 목적이 “체테크”임을 보여준다. 이상의 관찰을 종합할 때, “체다카”는 이전의 『개역한글』처럼 “의”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의”로 번역하는 것은 신약에서 “의롭다”라는 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성경전체의 통일성을 더욱 높여준다.

끝으로 문장과 문장의 의미가 서로 연결되도록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문장 하나하나를 번역을 잘 하면서도 다음 문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소홀히 한다면, 그만큼 가독성은 떨어질 것이다. 문장의 의미가 서로 연결되도록 번역하기 위해서 문장이 속한 글 전체의 신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투고 일자: 2022년 6월 15일, 심사 일자: 2022년 7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8월 16일)

16) B. K. Waltke, “Biblical Studies: Righteousness in Proverbs”, *WTJ* 70 (2008), 225.